

성공신화 부추기는 책들이 성공하는 비결

성공신화 담은 책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현택수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성공비결을 소개하는 책들은 소시민들에게 순간적으로 희망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의 길에서 거시적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위한 지침은 거의 없다. 미시적인 인생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조하고 가르칠 뿐이다. 무엇보다 이런 책들이 소시민들에게 희망의 전언이 되기 위해서는 배금주의적 가치와 행동지침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요즘 향간에 때 아닌 덕담이 유행하고 있다. 설날도 아닌데 북담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인사말로, '부~자 되세요'라는 어느 광고 카피에서 나온 것이다. 이 카피는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점과 세태를 반영한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부자와 성공에 대한 대중의 선망은 베스트셀러에서도 발견된다.

처세술 가르치고 우화·잠언 담은 책까지 다양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이른바 성공신화의 꿈을 파는 책들이다. 이런 책들의 주제는 대개 다음과 같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교육의 차이는 무엇일까,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당신의 습관을 확 바꿔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등이다. 이런 책들 가운데는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이나 풍성한 일화를 통해 처세술을 가르치는 형식부터 우화의 형식을 빌어 교훈을 주는 방식과 그럴 듯한 잠언으로 가득 찬 책들까지 나와 있다.

시중에 나온 이런 책들의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스펜서 존슨, 이영진, 진명

출판사),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메이슨 브라운, 이상욱, 21세기북스), 《떨떨이는 물고기처럼》(스티븐 C 런던, 외, 유명만, 한언), 《최고의 햄버거 만들기》(로버트 크리겔 외, 박행웅, 도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마크 앨런 외, 강주현, 국일미디어), 《끝없는 도전과 용기》(잭 웰치, 이동현, 청림출판) 등이다.

책 제목을 훑기만 해도 일반인들은 얼른 사서 읽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런 책들의 매력 내지 유혹은 저마다의 성공신화를 자랑하는 저 많은 책들 가운데 한권만 읽어도 독자는 당장 성공하는 비결을 터득해 벼락부자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데 있다.

이런 부류의 책들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강하게 끌 수 있는 까닭은, 조직 사회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최대한의 자기 능력과 잠재력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삭막한 경쟁의 세상에서 남을 이기고 출세할 수 있는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성공담 책들은 성공한 백



만장자의 얘기나 우화가 대부분이다.

인간 의식과 행동을 배금주의의 수단으로 인식해

이렇게 성공비결을 소개하는 책들은 소시민들에게 순간적으로 희망과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개인의 삶의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이런 성공담 책들이 가치관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개인이 조직사회나 일상생활에서 자기개발과 자기관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혁신과 회사의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이런 목표를 위해 성공신화의 책들은 독자 개인에게 항상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과감한 행동에 자신감을 불어넣고자 한다. 개인이 자기 발전과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잘못된 의식과 행동습관을 고치

도록 자극하고 유도한다는 면에서 이런 책들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러나 성공신화 책들은 대부분 개인의 처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즉 개인의 자기발전과 출세의 목적이 마치 돈을 버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의 모든 의식과 가치 및 행동이 배금주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총력 질주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책의 목차와 전개방식을 보자.

‘성공과 부는 정신자세에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목표가 확실해야 성공한다’ 혹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무난하고 쉬운 목표가 아닌 확연한 차이를 낼 수 있는 높은 목표를 가져라’ ‘CEO는 회사에 창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라’ 등 ‘~하라’ ‘~하지 마라’ 등의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독자들의 주의를 끈다.

자세히 보면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말들이 많다. 동어반복적인 표현과 이어령 비어령식의 속담 같은 잠언의 화술도 많다. 그리고 때로는 독자의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조급함에서 과장되고 선동적인 어투도 사용되고 있다. 성공담의 담론을 분석해보면 새로운 의식과 행동 지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경험과 다른 책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다. 결국은 비밀 아닌 비밀을 비밀처럼 포장했을 뿐이다. 실제로 어떤 책의 결론에서는 ‘결론은 성공의 비밀이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모든 인간을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내몰아

성공신화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독자의 잠재의식에 모종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는 점이다. 즉 독자가 자기 암시에 걸리도록 최면을 거는 문체를 사용한다. ‘성공할 수 있다! 진정으로 성공을 믿어라!’ ‘크게 생각하라! 그러면 크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간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면 반드시 이룬다’ 등 평범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독자의 뇌리에 주입한다. 성공담 책들이 우화와 잠언집의 형식을 쉽게 취하는 이유도 간략하고 명쾌한 문장이나 삽화 등으로 독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자가 자기 암시를 받기 위해서는 실패담도 미담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성공신화의 책에서는 성공하기 전의 무수한 실패들이 인위적으로 미화돼 있다.

성공신화 책들은 아쉽게 불행하게도 인간을 모두 호모 캐피탈리스트쿠스(자본주의적 인간) 내지 호모 매니지쿠스(경영적 인간)로 보고 있다. 현대인은 노동자나 경영자 할 것 없이 모두 변화에 민감하고 변신을 요구당하며, 일에 대한 열정과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원히 노동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책들이 강조하는 노동과 경영의 철학은 ‘열정 · 용기 ·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도전적으로 일하라!’는 것이다. ‘경영은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해야 하며,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이것은 경영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칙이자 전략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와 고용 불안정의 사회구조를 만드는 저주인 것이다.

배금주의적 가치와 행동지침의 이면 살펴야

성공신화는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를 채근한다. 성공하기 위해선 개인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열적으로 그 일을 대하라고 한다. 또한 생존과 승리를 위한 경쟁에서는 이겨야 하지만, 졌을 때는 패배를 인정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하지만 인생엔 지름길이 없으므로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인생의 길에서 거시적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방향제시나 지침은 거의 없다. 미시적인 인생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조하고 이를 가르친다.

성공신화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필독서로 회자하는 이유는, 고도로 합리화되고 무한 경쟁이 계속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근시안적인 목표 설정과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신화는 어떻게 개인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꿈은 바로 이런 곳에 있을까? 물질주의화돼가고 비인간화돼가는 사회 속에서 불안과 절망 그리고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과연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가? 그리하여 끊임없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성공원리만 추구하면 과연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조금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세상에는 현실주의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공신화의 책들이 자신있게 펼쳐고 있는 배금주의적 가치와 행동지침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돌아켜볼 기회는 줘야 한다. 즉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고, 성공을 위한 인간이 성실히 노력하는 다양한 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

현택수 교수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파리4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대 비판 사회이론의 흐름》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한국인의 일상문화》(공저), 《현대 사회와 구조 변동》(공저) 등을 펴냈고, 《강의에 대한 강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등을 옮겼다.

성공비법을 전수해주는 책의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의지를 절대명제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자의 우화와 경영의 지혜를 접목시킨 《원숭이 사냥》(골린 터너, 이민아, 창해)에서도 의지에 대한 제창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다음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자기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다. 근력이 종마를 식별하는 척도이듯, 의지력은 개개인의 역량을 식별하는 척도가 된다. 확고한 정신의 힘은 의지와 자제력, 결단력 등을 포괄하는, 극기에 성공하는 관문이 된다.”